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적 다양성. 독창성 추구

올 20여개 사업 19억 투입...제주문화예술진흥 체계 구축

고창일 기자 , 2008-01-11 오전 10:01:44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은 올 재단의 운영방향을 '문화적 다양성과 독창성의 문화진흥 체계 구축'으로 정하고 20여개의 사업을 펴기로 했다.

재단측에 따르면 창작. 향유. 소통의 네트워크형성을 비롯해 문화예술기관. 단체와닉 유기적 협력활동체계 강화, 문화재발굴사업 체계화 등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문예진흥사업에 10억8000만원. 문화재발굴보존사업에 8억2000만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문예정책개발사업은 삶과 문화 발간,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 발간, 제주문화비전강좌, 문화예술연수, 홈페이지 운영, 동영상문화예술정보뱅크 구축 등 6개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문예활동지원 사업은 제주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제주사랑티켓지원사업, 문화바우처지원사업, 제주문화사랑기부사업,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이다.

제주문화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재단은 제주문예연감발간, 제주문화예술60년사 발간, 제주어사업 편찬사업 등을 전개하고 문화재 발굴. 보존 활동의 경우 제주성 답사프로그램, 제주문화관련세미나, 발굴조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8-01-11 오전 10:01:44 © < 저작권자 © 이슈제주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